



라티노

■ 새로운 라티노의 부상과 그 의미

이 은 아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의하면 라티노 인구의 10.8%에 해당하는 인구가 중앙아메리카인(4.8%), 남아메리카인(3.8%), 도미니카공화국인(2.2%)이다. 이들은 멕시코 출신에 이어 2번째이며,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나 쿠바 출신보다 더 많다. 정확한 과거 국적을 밝히지 않는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출신까지 합산한다면 미국 라티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새로운 라티노에 해당한다.

이렇듯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라고 규정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초국가적(supernational) 용어로 동일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존 라티노를 파악해 왔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티노에 대해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그들을 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이 새로운 이민자 그룹은 기존 라티노에 동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언어적·문화적·정치적으로 동일한 그룹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새로운 라티노를 통해 ‘라티노’ 혹은 ‘라티노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구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들의 인구 증가 현상과 의미를 간략히 점검해 본다.

라티노 인구 증가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라티노 인구가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고, 이미 2000년에 미국 대다수의 주(16개주)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바이다. 2006년 3억 명을 돌파한 미국의 인구 중에서 라티노 인구는 약 4백만의 푸에르토리코인과 7백만의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약 4천 3백만 명이며, 2002년에 미국 내에서 흑인 인구를 추월하여 미국 내 최대 소수 인종으로 부상했다. 또한 추후 증가율, 미국의 이민정책,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년의 상황을 예상하였을 때 아래의 표에서 보듯 라티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게 된다.

[표 1] 미국 내 인종별 인구 변동

	1920년	1970년	2004년	2050년(예상)
백인	89.7%	83.5%	67.4%	50%
흑인	9.9%	11.1%	12.2%	17%
라티노	자료 없음	4.5%	14.1%	24%
아시아계	0.2%	0.8%	4.1%	9%

* 자료출처: 《중앙일보》 2006년 1월 16일자

라티노 인구의 증가는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사회가 표방해 온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라티노는 이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소수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구체화함에 따라 미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라티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보수적 성향의 비평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히스패닉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두 민족, 두 문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양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라티노 인구는 독립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미국이라는 국경선 내에 새로운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라티노 공동체는 미국 주류 사회와 차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라티노 그룹은 미국 내 어떤 소수 인종보다도 출신지의 정체성과 전통에 집착하고 있다. 혈통을 중시하는 아시아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언어적·인종적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라티노 그룹의 태도 때문에 미국 사회는 가속적으로 다중정체성이 공존하는 인터아메리카(inter-america)가 되고 있다.

[표 2] 미국 내 인종별 전통적 가치관 조사

설문: “부모는 자신이 속한 민족의 전통을 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라티노	흑인	아시안	전체(가중치)
5(전적으로 동의)	83.1%	72.6%	59.0%	67.6%
4	1.7%	11.1%	21.3%	10.9%
3	3.4%	6.7%	9.8%	7.4%
2	-	2.2%	6.6%	2.2%
1(전혀 동의안함)	5.1%	5.9%	1.6%	8.6%
잘 모름	6.8%	1.5%	1.6%	3.3%

자료출처: U.S. Census Bureau 2001, Current Population Survey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유럽, 일본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이 2005년도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530억 달러에 상당하는데, 이 액수는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총합을 넘는 금액이라고 한다. 라틴아메리카로 보내는 송금액의 가파른 증가추세로 본다면 이민자들이 국제 노동 시장에 완전히 편입됐다고 볼 수 있고, 이들에 의한 탈국가주의 추세는 이처럼 노동과 달러라는 양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라티노의 등장

라티노 가운데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쿠바 출신의 이민자들이 최대 종족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멕시코 출신은 전체 라티노의 63%로 2천6백만명, 푸에르토리코 출신은 3백7십만명(9%), 쿠바

출신은 1백 4십만명(3.5%)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라티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세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 출신의 이민자로 구성되어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 침체로 인해 중미와 남미 출신 인구의 대거 유입으로 생긴 이 ‘새로운(new)’ 라티노 혹은 ‘다른(other)’ 라티노는 기존의 라티노 인구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라티노 정체성 규명에도 새로운 이론적 틀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중미 또는 남미 출신의 이민자로 비교적 새로운 이민자 그룹에 해당되는데, 그 분포나 인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점점 그들 문화의 이중성, 혼종성의 문제를 라티노 연구의 중심 논의로 끌어들이고 있다.

[표 3] 미국 내 라티노(히스패닉) 인구

	2000 인구조사	백분율	2005 인구조사	백분율
멕시코인	20,640,711	58.5%	26,784,268	63.9%
푸에르토리코인	3,406,711	9.6	3,794,776	9.1
쿠바인	1,241,685	3.5	1,462,593	3.5
다른 라티노	10,017,244	28.4	9,884,665	23.5
다른 라티노 분류				
도미니카공화국	764,945	2.2	1,135,756	2.7
중앙아메리카	1,686,937	4.8	3,114,877	7.5
남아메리카	1,353,562	3.8	2,237,960	5.4
미분류 라티노	5,349,889	17.6	3,396,072	8.1
전체 라티노	35,305,818	100.0	41,926,302	100.0

자료출처: Pew Hispanic Center, Detailed Hispanic Origin, 2005

200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새로운 라티노들의 총 인구는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출신의 거주민을 합친 인구보다 많고, 향후 10년 내에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출신의 인구는 쿠바 출신 인구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라티노 인구의 90%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매사추세츠의 10개의 주에 집중되어 있다. 새로운 라티노는 이 중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에서 현저한 인구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도시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정치와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4개 주의 라티노 이민 인구 분포: 이민 1·2세대 (2000년 인구조사)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멕시코인	4829/83%	3051/93%	245/14%	170/9%
푸에르토리코인	47/1%	30/1%	328/18%	714/38%
쿠바인	47/1%	22/1%	692/38%	36/2%
중앙아메리카인	736/13%	140/4%	208/12%	153/8%
남아메리카인	184/3%	41/1%	280/16%	354/19%
도미니카공화국인	2/0%	9/0%	52/3%	457/24%
합계	5845/100%	3293/100%	1805/100%	1884/100%

자료출처: The Other Latinos, "Swimming in the Latino Sea", p.23.

위의 도표를 보면 그 어떤 라티노 그룹도 동부 해안 주에서는 다수 종족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뉴욕 라티노의 전형이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는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며, 플로리다의 쿠바 출신 라티노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단일 국가 출신 라티노로는 다수를 이루지만, 새로운 라티노의 총합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이나 플로리다에서도 멕시코 출신의 라티노는 상당수의 인구를 차지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근에 정착한 이민 1세대로, 미국 남서부의 3세대 라티노보다는 새로운 라티노와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서 멕시코 출신 라티노는 단연코 압도적이지만, 대부분 중미 출신의 이민자인 새로운 라티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바짝 뒤쫓고 있다. 대도시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뉴욕의 경우, 남미 출신 인구가 10년 사이 11%에서 21%로 증가하였고, 근래에 도착한 라티노 인구는 기존 인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라티노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라티노 인구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회의 19명의 라티노 대표 중 어느 누구도 이 새로운 라티노 출신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라티노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유권자의 영향력 또한 곧 확대될 것이고, 비록 현재 그 존재감은 약하다고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지금과 다르게 그려질 전망이다.

[표 5] 국적별 이민자 세대: 이민 3세대 포함 (2000년 인구조사)

	1세대	양부모가 외국 출생	양부모가 미국 출생	3세대	표본 크기
멕시코인	37.6%	21.3%	9.5%	31/6%	14853
푸에르토리코인	40.3%	26.1%	11.6%	22.1%	2417
쿠바인	69.7%	18.8%	5.2%	6.3%	988
중앙/남아메리카인	65/8%	20.4%	4.8%	9.0%	3529
스페인어사용국인	22.5%	11.8%	5.7%	60.0%	2022

자료출처: The Other Latinos, "Swimming in the Latino Sea", p.27.

멕시코 출신의 경우, 3분의 2 정도가 1세대 혹은 2세대 이민자에 해당되고 쿠바 출신의 경우 70%가 이민자이며, 중미와 남미 출신의 경우 66%가 이민자이다. 미국시민권자인 푸에르토리코인 중 40%가 현재 미국 본토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쿠바, 중미, 남미 출신 중 10% 미만의 인구만이 이민 3세대이다. 사실상 푸에르토리코 출신을 제외한다면 모든 국적 출신의 그룹은 이민 1세대 인구가 2세대 인구를 여전히 능가하고 있다. 새로운 라티노 중 이민 1세대(18세 이상) 대부분이 지난 20 여년 내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합법적 서류를 지니고 정착했다고 해도 시민권을 획득하기에 합당한 기간을 보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절반 이상이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다.

푸에르토리코인은 법률상 시민권자이고, 쿠바 출신 중 65%는 시민권자이다.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출신의 라티노도 역시 시민권자이다. 그러나 새로운 라티노 그룹에서 엘살바도르 출신의 59%,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48%, 콜롬비아 출신의 49%, 에콰도르 출신의 54%가 시민권자가 아니다. 여기에 멕시코 출신 이민 1세대나 2세대의 48% 또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시민권 여부가 정치적 참여 여부에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데 교육 문제가 정치 참여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교육의 부재는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멕시코 이민자의 절반 이상, 중미 출신의 44%,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46%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반면, 남미, 쿠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들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특히 콜롬비아, 에콰도르 출신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영역에 관심을 갖기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투표 참여율의 경우, 새로운 라티노 중 남미 출신, 그 중에서도 특히 칠레 출신의 이민자는 93%를 보이는 반면,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 출신의 투표율은 저조하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라티노의 투표율을 좌우하는 것이 시민권 획득 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투표 참여율이 라티노 인구 전체의 투표율을 상회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투표율은 라티노 정치학, 특히 그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4개의 주와 대도시의 정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라티노의 의미와 과제

첫째, 최근 20년간 라티노 인구의 다양화로 라티노가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념뿐만 아니라 라티노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라티노 또는 히스패닉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더 이상 확정적이거나 불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구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런 분류에 스스로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라티노 그룹 중 많은 숫자가 스페인어 사용이 서툰 원주민 이민자들과 아이티, 벨리즈, 자메이카 등과 같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스페인어 사용국이 아닌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라티노와 새로운 이민자 라티노 사이의 언어와 법적 상태, 출신 국가 등의 차이가 태생적으로 혼종적인 라티노의 개념을 한층 더 다원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티노를 언어적·문화적·정치적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 경향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둘째, 새로운 라티노를 기존 라티노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들이 멕시코, 쿠바,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들과 유사한 도전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인지,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 문화 사이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인지, 이주 여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문화 즉, 본토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립할 것인지, 기존의 라티노를 설명하던 이중의식(double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으로 이들의 주체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이들에 대한 인종 개념이 다른 식으로 적용될 것인데, 자발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정체성 규명과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외적 규정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새로운 이민자들의 자기 정체성 규정은 사회경제적·문화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자신들을 라틴아메리카 타국 출신의 이민자와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종족그룹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자본, 계급, 외향 등의 특징에 따라 주변 환경에서 다양하게 인지하는 종족-인종 위계성에 근거하여 자기 정체성 규명을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 히스패닉/라티노의 구분은 언어나 출신국의 차이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 백인들에 의해 어떻게 시각적으로 인식되는가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미국인들이 현재 구분하고 있는 흑인, 백인, 히스패닉/라티노 등의 개념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미국 사회가 지닌 계급이나 인종 자체에 대한 인식 또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라티노가 현저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어떠한 단일 국가 출신의 이민자 그룹도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남서부에서

도 이런 경향이 생겨나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자가 곧 쿠바 출신 이민자를 능가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라티노 공동체의 형성은 기존 라티노 인구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에도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두드러지는 일례로, 뉴저지의 페루 공동체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페루 이민자들의 문화 행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페루의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인 ‘기적의 예수님’(El Señor de los Milagros)을 뉴욕, 보스턴 등 대도시 축제로 만들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종교적·종족적 배경을 지닌 페루인을 하나로 아우르는 장소를 마련할 뿐 아니라 볼리비아인, 에콰도르인 혹은 라틴아메리카의 타지역에서 새롭게 도착한 이민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라티노 그룹이 각기 출신국을 대변하며 부상했듯이 새로운 라티노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 라티노 다양성을 지역, 주, 국가적 차원에서 증대시키고, 라티노 그룹 내에서 새로운 연계와 통합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José Luis Falconi and José Antonio Mazzotti (eds.). 2007. *The Other Latinos: Central and South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David Rockefeller Center Series on Latin American Studies.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